

ES04

Membrane Strip형 면역센서 신호발생원으로서의 전기전도성  
고분자-항체 중합체  
Conducting Polymer-Antibody Conjugate as Signal Generator in  
a Membrane Strip Immunosensor

김정환, 조정환, 최강\*, 차근식\*, 백세환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광운대학교 화학과\*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질병 지표물질의 정량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용 membrane 스트립형 면역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특정항체가 고정화된 nitrocellulose (NC) membrane에 screen-printing 기술에 의한 전기전도도 측정용 전극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신호발생원으로써 전도성고분자인 polyaniline(PANI)이 표지된 항체를 제조하였다. 0.4 M aniline monomer는 0.2 mM ammonium persulfate에 의한 라디칼 반응으로 중합되었고 pH 변화에 의해 수용성 polyemeraldine green 염 형태로 합성되었다. 이 고분자를 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in)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monoclonal antibody에 0.1% glutaraldehyde로 공유결합 시켰으며 항체분자와 PANI는 molar ratio 1:10 조건에서 최적 중합효율을 보였다. Sandwich immunoassay를 통해 전기전도도는 HCG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관찰하였고, colloidal gold 항체 중합체에 의한 색조밀도 측정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한 민감도를 나타냈다. 전도성 PANI를 표지물질로 적용할 경우, 전극과 같은 고체-액체 계면 상에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conducting pathway의 형성은 고체상에 고정화된 단백질 분자 간 전자전달방식으로 알려진 electron hopping 효과 혹은 capacitance를 증폭시켜 센서시스템의 측정민감도를 향상시키리라 판단된다.